

### 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일상과 심의 중간 같은 사진.  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
이호준 Lee, Ho-Joon | 언론학박사·포토에세이스트

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여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 <직조>와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.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, 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



부암동 무계원

꽃 사진 찍기를 좋아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라는 말이 있다. 그래서 예쁜 꽃을 보고도 일부러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. 나이 먹은 티를 내기 싫었던 것이다. 그런데 어느 날, 그런 생각이 참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. 아름다운 꽃 앞에서 나이와 체면이 대수인가. 3월에 시작해 4월이 되면 봄꽃 사태가 일어난다. 동백을 시작으로 산수유, 목련, 개나리, 진달래, 살구꽃, 벚꽃 등이 경주하듯 앞다투어 봉오리를 터뜨린다. 저마다 화려하고 소박한 자태를 뽐내는 꽃 잔치에 어찌 카메라를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. 눈부신 계절, 꽃의 향연 앞에서 아저씨의 마음은 흔들린다. 그러면 좀 어떨까.



경의중앙선 신촌구간